

케이팝(K-POP) 스타들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

- 디지털 공공외교 「플랜트 아워 플래닛(Plant Our Planet)」 캠페인 콘서트 개최
- 캠페인 참여 전세계 1억 6천만명 돌파

외교부는 산림청,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‘기후위기 대응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’ 확산을 위해 「플랜트 아워 플래닛(Plant Our Planet)」 캠페인 콘서트(이하 「POP 캠페인 콘서트」)를 7-9월간 온라인, 가상세계(메타버스), MBN TV 채널을 통해 개최하였다.

※ 7.29(금) 외교부 공공외교 누리소통망(SNS) 「코리아즈(KOREAZ)」 유튜브 채널, 7.30(토) MBN TV 채널, 9.15(금) 가상세계(메타버스) 플랫폼 「플레이투게더(Play Together)」에 송출

이번 콘서트에는 더보이즈, 프로미스나인, 에이비식스(AB6IX), 백호, 유나이트 등 케이팝 스타들이 참여하여 공연과 함께 숲 조성 관련 게임, 기후 위기 지역 팬들과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나무심기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. 특히 이번 공연은 온라인 송출과 함께 POP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상세계(메타버스) 플랫폼 「플레이투게더(Play Together)」 내 공연장에서도 개최되었는데, 이를 통해 전세계 16만 케이팝 팬들이 참여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연을 관람하고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기도 하였다. 이번 콘서트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, 디지털 시대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시도하여 참여도 및 메시지 확산 수준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.

연말까지 계속되는 POP 캠페인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계한 캠페인으로,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나무를 심으면 현실세계에서 나무심기로 환원되는 방식이다. 현재 9월 기준 200여개국 약 1억 6천만명 이상이 가상공간을 방문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, 이와 연계하여 현실세계에서 지난 4월 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몽골, 인도네시아, 베트남에서 총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식수

행사가 열렸으며, 오는 11월 파라과이에서도 식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.

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가치를 확산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공외교 글로벌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.

첨부

1. 콘서트 사진
2. POP 캠페인 상세 및 참여방법. 끝.

담당 부서	공공문화외교국 디지털공공외교과	책임자	과장	류은진 (02-2100-8520)
		담당자	사무관	한선영 (02-2100-8521)